



준비하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치매 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치매관련 서비스, 교육, 연구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국립중앙치매센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2번지 유스페이스2 A동 308호, 1666-0921
디자인: 쏘울커뮤니케이션즈
Copyright © 2013 국립중앙치매센터
본 저작물은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9 788996 982623
ISBN 978-89-969826-2-3



준비하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치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 발생 후 진단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2.5년
치매로 인해 고동받는 가족의 수도 빠르게 증가 중
조로기 치매
2013년 치매환자 57만명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 발생
25만명의 치매환자
10년 후 치매환자 가족
10년 후 치매환자 100만
가족성 치매
치매환자 가족 고동호소
간병인 고동호소인원 가족 고동
간병인 고동호소인원 2,100명
간병인 고동호소인원 2,100명
간병인 고동호소인원 2,100명





우리나라 어르신

3명중 2명은

치매가 나와 관련이 없는
드문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중 1명은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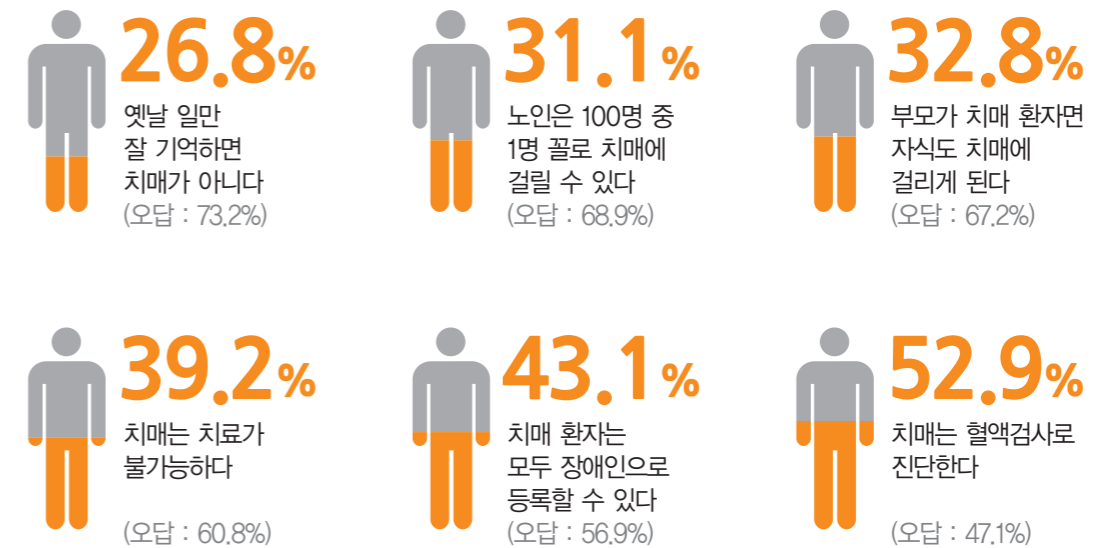
치매를 이겨내는 첫걸음은
바로 치매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57만명의 치매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100만이 넘는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치매 환자 증가의 심각성에 비해 치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식은 60점 수준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3명 중 2명은 치매가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100명 중 1명 수준의 드문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치매가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일만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치매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인식도조사 정답률]



* 위 제시된 모든 질문 문항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출처: 2012년 치매유병률조사)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5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 57만 명 중
25만 명의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25만명  * 1만명



25만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남성의 인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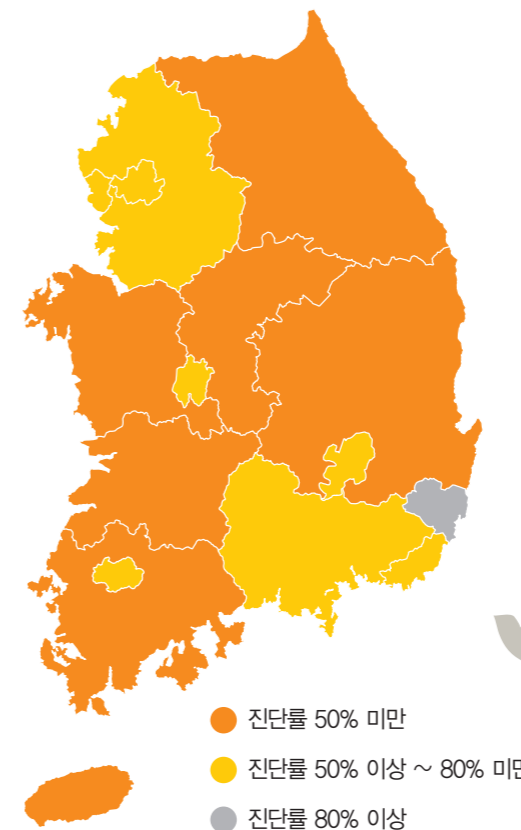
**준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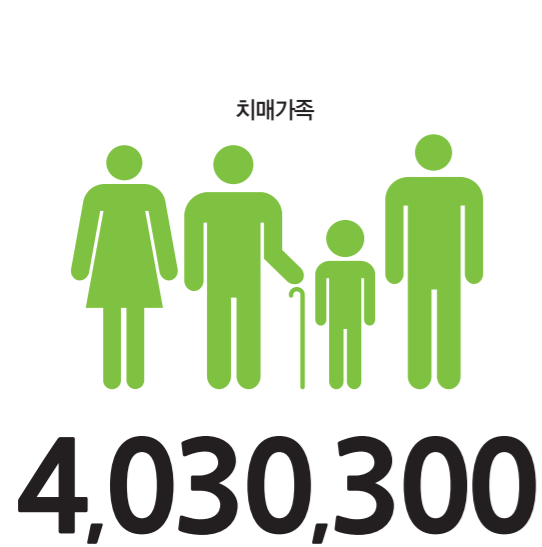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가족 중 2명 중 1명은 부모님이 치매인데도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치매환자가 치매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5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아예 진단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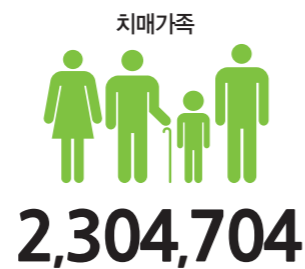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매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을 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호의 어려움으로 인해 살인을 택하는 간병 살인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별 치매진단율]





치매환자수의 증가만큼, 치매환자 가족 수의 증가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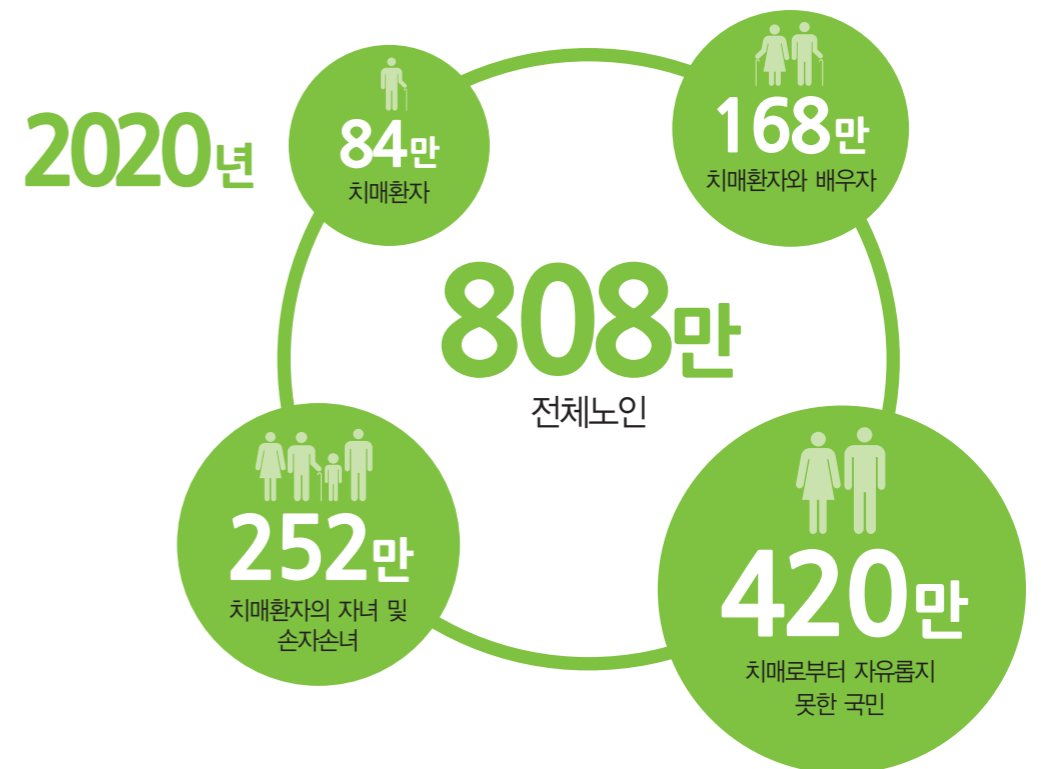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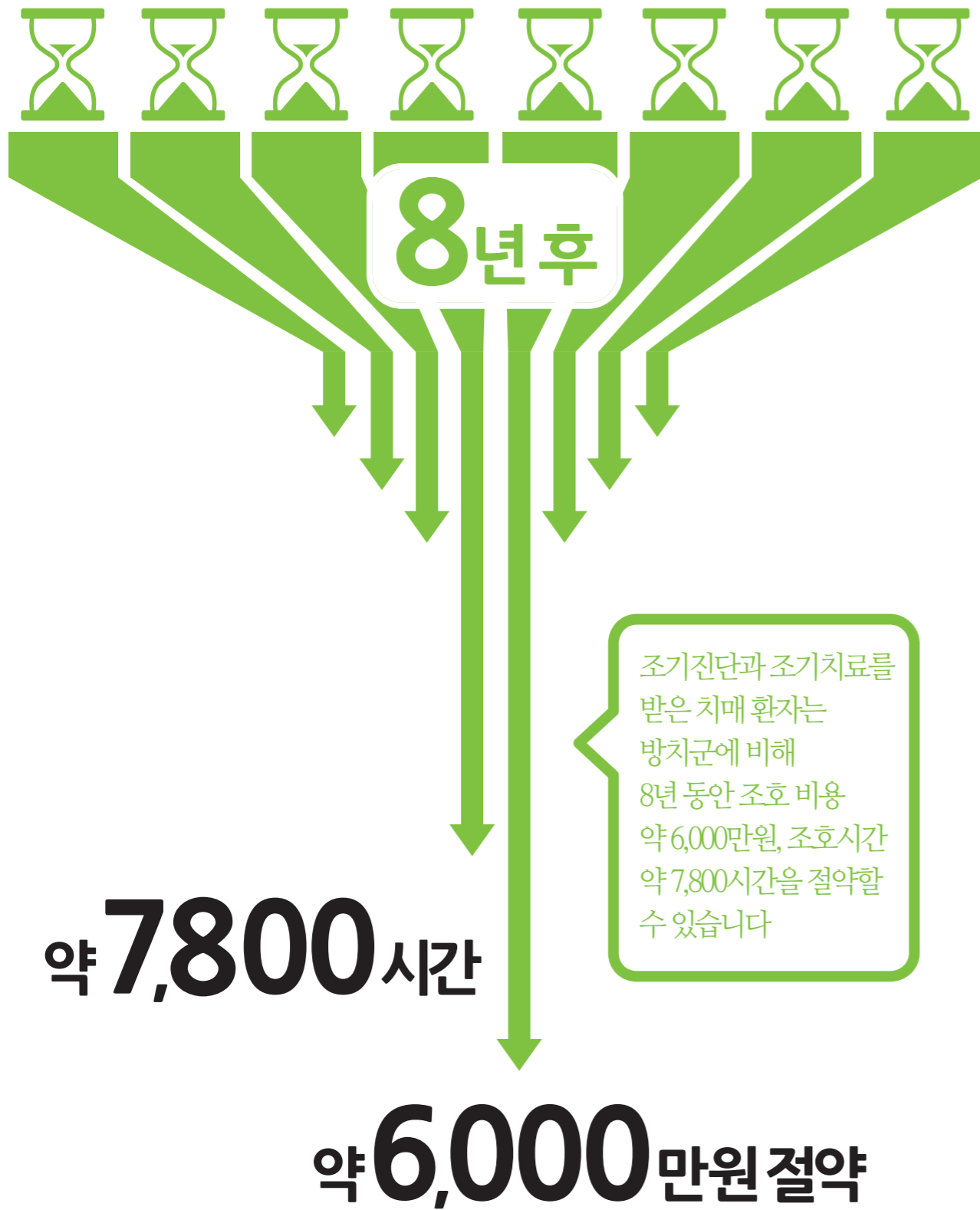
준비하세요! 조기진단, 조기치료는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감에 따라, 치료비용과 조호시간 등 치매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수]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수는 약 614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약 57만 명이 치매 환자이고, 치매 환자의 배우자 수까지 합하면 약 115만 명의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되어 2020년이 되면 약 808만 명의 전체 노인 중 치매환자는 84만, 여기에 배우자의 수를 합하면 약 168만 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를 부모님으로 둔 자녀수는 약 115만 명이고 2020년이 되면 약 16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 치매환자를 조부모로 둔 손자손녀의 숫자도 현재는 57만, 2020년이 되면 약 84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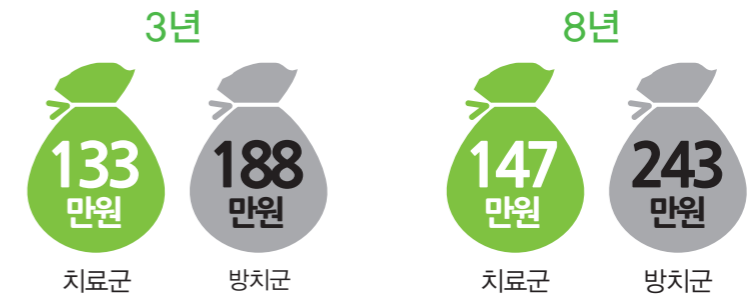
미리미리 진단하고, 미리미리 치료하면 치매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발병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조기발견을 통해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평균 중증도 또한 크게 감소합니다.

[조호비용]

방치군의 조호비용은 치료군에 비해 치매 발병 3년 후 매월 5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8년 후에는 월 9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조호시간]

방치군의 조호시간은 치료군에 비해 3년 후 매일 2시간이 더 소요되며, 8년 후에는 매일 4시간을 더 소요하게 됩니다



60세이상

전국보건소
무료 치매검진사업



66세

70세

74세

치매 조기검진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66세, 70세, 74세라면
국민건강보험
무료 건강 검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



www.nid.or.kr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증치매노인지원사업, 치매전문교육,
치매극복 캠페인, 파트너 사업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